

휴가 전에 끝내자

4차 교섭 사용자측 2차 질의, 노조는 차기에 안 제출 요구



△ 5.18(목) 대원산업 안산공장에서 17년 4차 교섭이 열렸다. 회사 측 8개사 15명, 노동조합은 9개 사업장 43명이 참가했다.

우리 삶 바뀌어야 세상 바뀐다

3주 만에 열린 교섭, 그 사이에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의 바뀐 행보에 한국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정규전 지부장은 “새 정부의 행보와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노조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정리하고, 파견법 등으로 노동권이 크게 후퇴한 경험이 있어 우려도 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들이 ‘세상 바뀌었으니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세상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변화해야 진짜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촛불이 만든 계기 속에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자”며 교섭을 열었다.

오늘 사측 교섭대표를 맡은 대원산업 김대경 이사는 “새로운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한다. 다만 교섭은 주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익에 따라 윈윈했으면 한다. 노조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차기에 안 내라

4차 교섭에서는 지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2번째 질의가 이어졌다. 사측은 임금인상 요구안에 관해 ‘회사별 상여금 지급율, 수당, 호봉승급 등 차이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실질적 임금인상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노조의 통일적 임금인상 요구는 회사에게 불리하지 않은가’라며 3차 교섭에 이어 또 물었다. 지부는 “지난 번 답변한 내용과 같다. 각 사업장의 다른 조건과 내부적 조건을 감안하고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요구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관해 사측이 추가 설명을 요구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노조는 휴가 전 타결이 목표다. 사용자측도 임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안을 내주시기 바란다. 다음 교섭부터는 안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4차 교섭을 마쳤다.

5차 교섭은 5월 25일(목) 14시 두원정공에서 열린다.

노조만들기 프로가 되자

교섭을 마치고 **노조 만들기 10가지** 팁을 공유했다. 지부는 12년 SJM 직장 폐쇄 철회투쟁으로 노동조합 파괴의 도미노를 멈춘 다음, ‘방어에서 확산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새노조가 생기면 지부 전체가 몸과 마음을 쏟았다.

삼성,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위아비정규직, 말레동현, 코리아에프티, 지큐피앤씨, 대창, 삼화 등 최근 5년 합류한

조합원이 1천 명이 넘는다. 하지만 실패도 여럿 있었다. 조합원들은 우리가 가장 성찰해야 할 일로 ‘오스람 등 새 노조설립 실패’를 꼽았다. 작년에 물뽕 정신으로 대창지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회사가 뒤끝작렬하고 있어서 지회 안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지난 과정의 교훈과 노하우를 모아 교안으로 정리했다.

자본권력이 강한 시대, 회사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뒤집는 노조만들기는 작은 혁명이다. 촛불과 정권교체 후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무권리노동자들이 나설 때, 10가지 팁을 바탕으로 함께 준비해서 작은 혁명의 촉진자가 되자는 마음을 나눴다. ‘다른 세상을 위한 촉진자’ ‘노조만들기 프로선수’가 될 우리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힘내요 우리 하이디스♡

5월 11일, 하이디스지회 故 배재형열사 2주기 추모제가 마석 모란공원의 열사묘 앞에서 열렸다. 열사가 떠난 2년 사이 열사를 형, 오빠, 아저씨, 재형이라 부르던 동료들은 전국 곳곳을 돌며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우는 투사가 되었다. 하이디스 조합원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원하는 지부 사업장 간부들과 많은 연대 단위들이 추모제에 참가해 100여 명이 모였다. 대만동지들도 함께 했다.

5월 셋째 주, 지회에 두 가지 재판 결과가 전해졌다.

‘신발 모욕죄’는 열사가 돌아가신 후 떠난 4차 대만원정에서 경영진의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회사가 조합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이다.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사소송까지 합치면 총 350만원 짜리 신발 한 짝이다.

또 하나는 ‘명예훼손’이다. 열사가 돌아가신 직후 인터뷰 기사에 대해 회사가 명예훼손이라며 회사에 1억, 대표이사에게 3억을 손해배상청구 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지회장으로서 열사를 하늘로 보낸 억울함을 표현한 것인데, 3년째 길에서 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을 어떻게 봐야할까. 시작부터 예상했지만, 그

래도 조합원들이 심난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연하고도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하이디스지회 내공에 재판 몇 개가 조직력에 흠집을 내지는 못한다. 열사의 2주기에서 정규전 지부장은 “열사의 생전 염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꼭 만들어 가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라며 미안함과 책임감을 담아 투쟁을 다시 한 번 결의했다. 우리의 마음은 끊이지 않고, 하이디스 지회 승리의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힘내요 우리 하이디스 조합원들♡



△ 하이디스 조합원들이 늘 입는 몸벽보를 빨아 말리고 있다. 눅눅하고 다친 마음 바짝 말리는 그 날까지 모두 힘!

뱀아도 자꾸 일어나는 우리가 워아여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교섭을 시작한다. 기존 3개 업체(에스엠텍, 신광이엔지, 화스텍)와는 또 다른 ‘보경’이라는 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것이다. 보경은 현대위아평택공장에서 보전업무를 하는 업체다. 보경 노동자들은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멈추지도 않은 채로 수리를 하는 위험한 노동 환경과 비인격적 대우에 맞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2013년 지회가 설립된 후로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으로 교섭권 뺏기, 계약해지 등 금속노조를 없애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끝이 없었다. 15년 화스텍이 대표노조가 되어 현대계열부품사비정규직 최초로 파업을 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회사는 사람 더 뽑아서 기업노조 인원을 늘려 교섭권을 빼앗아갔다. 다시 업체별 대표노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올 해 또 새 업체가 합류했다. 노조는 4월 20일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치사하게 나왔다. 몇 차례 교섭 일정을 둘러싼 공방을 거쳐 5월 19일(금) 15시 교섭 상견례가 열린다.

지회는 17일(수) 아침 7시 투쟁 출정식을 열어 결의를 다졌다.(아래사진) 안성·평택지역 사업장 간부들도 함께 했다. 뱀아도 뱀아도 자꾸 일어나는 현대위아평택 노동자들, 몇 년째 역동적인 현장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간절함에 지역에서부터 지부 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